

갈석산(碣石山)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김진경

차례

I. 머리말

II. 선행 연구의 문제점

III. 사서와 고지도에 나타나는 갈석산(碣石山)

1. 『삼국사기』, 『수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2. 『사기』
3. 『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
4. 『대청광여도』, 『우적도』, 『대명여지도』 등

IV. 갈석산의 위치 비정(比定)

1. ‘하(河)’를 ‘해(海)’로 바꾸어 부르는 지점
2. 계(薊)의 위치
3. 유주(幽州) 요서군 또는 평주(平州) 북평군
4. 석성현, 해양현, 비려현, 신창현, 노룡현, 임유현, 려성현 등

V. 맺는말

【국문요약】

갈석산의 위치는 고구려가 7세기에 수·당과 어디서 국경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켜 주고 있다. 또 삼국시대 이전 시기의 고대 강역이 어디인지를 가리켜 주고 있다. 즉, 『삼국사기』, 『수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에 따르면 수·당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갈석과 발해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서』와 『신당서』 지리지에 따르면 갈석산의 위치가 수(隨) 대의 북평군 노룡현 또는 당(唐) 대의 평주 북평군 석성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한서』(전한서) 지리지에는 갈석산이 유주 우북평군 려성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후한서』 군국지에 부기되어 있는 주해(『산해경』, 『수경』 등)에 따르면 유주 요서군 임유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유주(幽州)와 유주에 속하는 각 현(縣)들의 위치를 밝힘으로써 갈석산(碣石山)을 현재의 하남성 정주(鄭州) 서북쪽 황하 남쪽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삼황산(三皇山)으로 비정하였다.

주제어 : 갈석(碣石), 평주(平州), 북평군(北平郡), 기주(冀州), 유주(幽州), 계현(薊縣), 연경(燕京), 발해(渤海), 장성(長城), 삼황산(三皇山)

I. 머리말

우리나라 고대 역사적 지명(地名)의 위치와 고대 국가의 강역(疆域)을 논하는데 있어서 갈석산(碣石山)의 위치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갈석산에 관한 기록으로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료로서 전국시대(戰國時代, 기원전 403~221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국책(戰國策)』¹⁾, 전한(前漢)의 유안(劉安, 기원전 179~122년)이 편찬하였다고 하는 『회남자(淮南子)』 등이 있다. 특히 『전국책』 권제29 연(燕) 제12)에 따르면, 연의 동쪽에 조선·요동(朝鮮·遼東)이 있었으며 남쪽에 호타·역수(呼沱·易水)가 있었다. 또 남쪽에는 갈석·안문(碣石·鴈門)의 풍요로움이 있고 북쪽에는 대추와 밤이 풍부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호타·역수·갈석·안문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연과 조선·요동이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의 강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중국 25사(史) 등의 기록들을 토대로 갈석산 등 주요 역사적인 지명들이 어디를 의미하였는지 명확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고대사의 가장 오래된 사료인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고, 중국 25사 등 관련된 사서의 지리지(地理志) 등을 중점 사료로서 활용하여 갈석산의 올바른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의 문제점

갈석(碣石)이란 지명은 우리나라 고대사의 강역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명이다. 따라서 대일항쟁기를 거쳐 광복이후 많은 역사학자들이 갈

1) 『전국책(戰國策)』 :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사관(史官)이나 책사(策士)가 기록을 채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한(前漢) 말에 유향(劉向)이 33편(篇)으로 교정(校訂)하였는데, 북송(北宋)대에 11편(篇)이 소실되었다. 증공(曾鞏)이 이를 다시 정보(訂補)하여 서주(西周)·동주(東周)·진(秦)·제(齊)·초(楚)·조(趙)·위(魏)·한(韓)·연(燕)·송(宋)·위(衛)·중산(中山) 등 12책(策)으로 나누어 486장(章)으로 만들었다. 춘추(春秋) 말에서 진(秦)까지 24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는데 지백(智伯)과 조씨(趙氏)가 상쟁(相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왕(齊王) 건(建)이 진(秦)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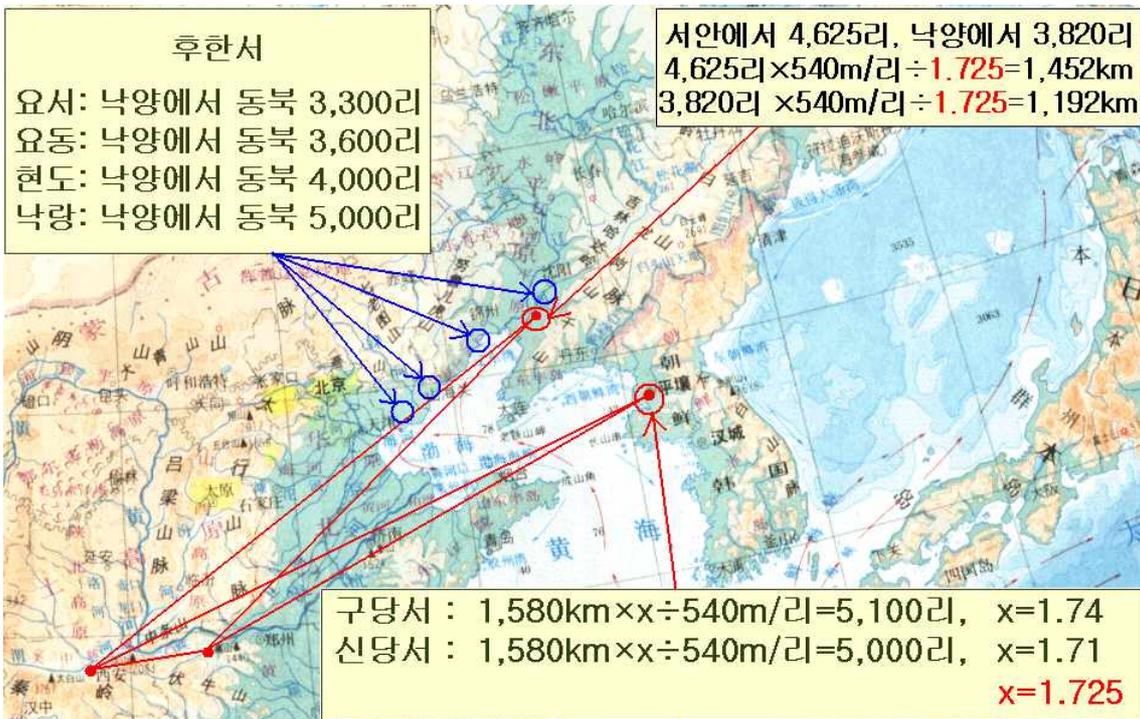
2) 『전국책(戰國策)』 권제29 연(燕) 제1 :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七百乘, 騎六千疋, 粟支十年. 南有碣石·鴈門之饒, 北有棗栗之利. 民雖不由田作, 棗栗之實, 足食於民矣. 此所謂天府也. 夫安樂無事, 不見覆軍殺將之憂, 無過燕矣...

석산의 위치를 올바르게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간 지명의 위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많은 연구원들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각 시대별로 사관(史官)들이 기록한 내용 그대로 현재까지 전수되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각 시대별로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잘못 기록할 수도 있으며 의도적으로 고쳐서 기록했을 수도 있다. 또 당대(當代)에 올바르게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후대(後代)에 뜯어 고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의 기록 자체를 그대로 믿고자 했던 의식이 지나치게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못 기록하거나 뜯어 고쳐진 기록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지명의 위치 또는 고대사의 강역을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한서』·『신당서』·『요사』 등에 지명과 지명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가 리(里) 단위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km 단위로 환산하여 실제거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후한서』와 『신당서』에서 각각 지칭하는 요동과 낙랑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한서』의 경우, 낙양(洛陽)에서 부터 요서군·요동군·현도군·낙랑군 등까지 방향과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또 『신당서』의 경우, 서안(西安)과 낙양(洛陽)에서부터 안동도호부와 평양성까지

지 각각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즉, 『신당서』 기록에 따르면, 안동도호부는 한(漢)의 양평성이며 요동고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요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평양성은 남쪽에 패수와 접하고 있으므로 낙랑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한서』와 『신당서』의 거리수치가 가리키는 요동과 낙랑의 위치가 각각 서로 다르다. 즉, 최소한 두 기록 중에 하나는 의도적으로 뜯어 고친 위사(僞史)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그림 1]에서 각 지역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한척 1리=420m와 당척 1리=540m를 적용하였으며, 직선거리와 실제이동거리간의 굴곡지수(x)는 『신당서』의 상기 안동도호부 거리수치로부터 산출한 $x=1.725$ 를 적용하였다.³⁾ 만약 『후한서』의 기록이 옳다면 갈석산이 현재의 난하 인근 지역에 있어야 하며, 『신당서』의 기록이 옳다면 갈석산은 현재의 요하 인근 지역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후한서』와 『신당서』의 두 기록이 모두 위사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요동, 요서, 현도 낙랑 등이 속했던 유주(幽州)의 위치가 본 논문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 주변지역으로 비정(比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즉, 당(唐) 대의 유주는 전국시대 연도(燕都)였으며, 한(漢) 대에 광양군, 진(晉) 대에 연국, 수(隨) 대에 탁군, 요(遼) 대에는 남경(연경)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바로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갈석산을 비롯하여 고대 역사적 지명의 위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사서 상에서 의도적으로 뜯어 고쳐진 위사(僞史)에 근거한 그릇된 연구결과만 양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진사(眞史)인지 위사(僞史)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별하면서 갈석산의 위치를 비정하고자 한다.

III. 사서와 고지도에 나타나는 갈석산(碣石山)

1. 『삼국사기』, 『수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삼국사기』 영양왕 23년(612년)⁵⁾의 기록에 따르면, 수(隋) 양제(煬帝)는 ‘고구려가 발해(渤海)와 갈석(碣石) 사이에 모여들어 요(遼)와 예()의 경계를 거듭하여 침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좌(左) 12군(軍)은 누방(鏐方)·장잠

3)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4)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5) 삼국사기 권제20 영양왕 23년(612년) : 春正月壬午 帝下詔曰 高句麗小醜 迷昏不恭 崇聚勃碣之間 荐食遼濊之境... 左十二軍出 鏐方 長岑 溟海 蓋馬 建安 南蘇 遼東 玄 扶餘 朝鮮 沃沮 樂浪 等道右十二軍出 黏蟬 含資 渾彌 臨屯 候城 提奚 踏頓 肅慎 碣石 東曺 蒂方 襄平 等道絡驛引途摠 集 平壤

(長岑)·명해(溟海)·개마()·건안(建安)·남소(南蘇)·요동(遼東)·현도(玄)·부여(扶餘)·조선(朝鮮)·옥저(沃沮)·낙랑(樂浪) 등의 길, 우(右) 12군은 점선(黏蟬)·함자(含資)·혼미(渾彌)·임둔(臨屯)·후성(候城)·제해(提奚)·답돈(踏頓)·숙신(肅慎)·갈석(碣石)·동이(東曺)·대방(薊方)·양평(襄平) 등의 길로 연락을 끊지 않고 길을 이어 가서 평양에 모두 집결하라.’고 명령하였다.

또 『수서』 권제4 양제 하권6)에서도 ‘발·갈지간(勃·碣之間)’과 ‘요·예지경(遼·獫之境)’을 거론하면서 상기 지명들이 똑같은 순서로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삼국사기』 보장왕 3년(644년)⁷⁾의 기록에 따르면 당(唐)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유주(幽州)와 계주(薊州)에 순행하고 요동(遼東)과 갈석(碣石)에서 (고구려의) 죄를 물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또 『자치통감』 8)9)에도 상기 『삼국사기』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즉, 수와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그 군사 이동경로 중에 갈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발해·갈석·요동·요·예 등이 수·당과 고구려 간에 국경지대를 형성하는 인근 주변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서』 권제30 지리지¹⁰⁾에 따르면 수(隋) 대의 북평군(北平郡) 노룡현(盧龍縣)에 갈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당서』 권제30 지리지¹¹⁾에는 당(唐) 대의 평주(平州) 북평군 석성현(石城縣)에 갈석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갈석은 7세기에 통용되었던 지명으로서 수 대의 북평군 노룡현 또는 당 대의 평주 북평군 석성현에 위치하고 있었던 갈석산임을 알 수 있다.

6) 『수서(隋書)』 권제4 제기(帝紀) 제4 양제(煬帝) 하 : (大業) 八年(612)春正月辛巳, ...而高麗小醜, 迷昏不恭, 崇聚勃·碣之間, 荐食遼·獫之境.... 左第一軍可鏤方道, 第二軍可長岑道, 第三軍可海冥道, 第四軍可蓋馬道, 第五軍可建安道, 第六軍可南蘇道, 第七軍可遼東道, 第八軍可玄菟道, 第九軍可扶餘道, 第十軍可朝鮮道, 第十一軍可沃沮道, 第十二軍可樂浪道. 右第一軍可黏蟬道, 第二軍可含資道, 第三軍可渾彌道, 第四軍可臨屯道, 第五軍可候城道, 第六軍可提奚道, 第七軍可踏頓道, 第八軍可肅慎道, 第九軍可碣石道, 第十軍可東道, 第十一軍可帶方道, 第十二軍可襄平道. 凡此衆軍, 先奉廟略, 駱驛引途, 總集平壤.

7) 『삼국사기』 권제21 보장왕 3년(644년) : 今欲巡幸 幽 薊 問罪 遼 碣

8) 『자치통감(資治通鑑)』 권제181 수기(隋紀) 제5 양황제(煬皇帝) : (大業) 八年(612) 正月 壬午, ...詔左十二軍出鏤方·長岑·溟海·蓋馬·建安·南蘇·遼東·玄菟·扶餘·朝鮮·沃沮·樂浪等道, 右十二軍出黏蟬·含資·渾彌·臨屯·候城·提奚·蹋頓·肅慎·碣石·東道·帶方·襄平等道, 駱驛引途, 總集平壤....

9) 『자치통감(資治通鑑)』 권제197 수기(唐紀) 제13 태종문무대성대광효황제(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 : (貞觀) 十八年(644) 十一月 甲午, ...今欲巡幸幽·薊, 問罪遼·碣, ...

10) 『수서(隋書)』 권제30 지리지 중 : 北平郡 舊置平州. 統縣一, 戶二千二百六十九. 盧龍 舊置北平郡, 領新昌·朝鮮二縣. 後齊省朝鮮入新昌, 又省遼西郡并所領海陽縣入肥如. 開皇六年又省肥如入新昌, 十八年改名盧龍. 大業初置北平郡. 有長城. 有關官. 有臨渝宮. 有覆舟山. 有碣石. 有玄水·盧水·溫水·溫水「溫」原作「涅」, 據水經一四濡水注改. 閩水·龍鮮水·巨梁水. 巨梁水「巨」原作「臣」, 據水經一四鮑邱水注改. 有海.

11) 『신당서(新唐書)』 권제39 지리지 제3 : 平州 北平郡, 下. 初治臨渝, 武德元年徙治盧龍. 土貢: 熊羆·蔓荊實·人蔘. 戶三千一百一十三, 口二萬五千八十六. 縣三. 有府一, 曰盧龍. 有盧龍軍, 天寶二載置. 又有柳城軍, 永泰元年置. 有溫溝·白望·西狹石·東狹石·綠疇·米磚·長楊·黃花·紫蒙·白狼·昌黎·遼西等十二戍, 愛川·周夔二鎮城. 東北有明埵關·鵝湖城·牛毛城. 盧龍, 中. 本肥如, 武德二年更名, 又置撫寧縣, 七年省. 石城, 中. 本臨渝, 武德七年省, 貞觀十五年復置, 萬歲通天二年更名. 有臨渝關, 一名臨閭關. 有大海關. 有碣石山. 有溫昌鎮. 馬城. 中. 古海陽城也, 開元二十八年置, 以通水運. 東北有千金冶. 城東有茂鄉鎮城.

2. 『사기』

『사기』 권제2 하본기 제212)에 따르면, 우(禹) 임금의 치수(治水) 공적을 설명하면서 기주()의 경계지역에 있는 갈석과 관련하여 ‘협우갈석(夾右碣石) 입우해(入于海)’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기주의 경계지역에 갈석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상기한 ‘협우갈석 입우해’라는 구절은 갈석을 우측에 두고 해(海)로 ‘들어갔다’ 또는 ‘들어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사기』 하본기에 부기되어 있는 당 대의 주해(『정의』 13)에 따르면, 황하(黃河)가 승주(勝州) 동쪽으로부터 곧바로 남쪽으로 가면 화음(華陰)에 도달하며 거기서 바로 동쪽은 회주(懷州) 남쪽이다. 또 동북으로 가면 평주(平州)에 도달하고 갈석산에서 해(海)로 들어간다. 동쪽에 있는 동하(東河)의 서쪽, 서쪽에 있는 서하(西河)의 동쪽, 남쪽에 있는 남하(南河)의 북쪽이 모두 기주(冀州)이다.

즉, 상기 『정의』에 따르면 황하가 갈석산에서 ‘해(海)’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의』는 당(唐) 대의 주해(註解)이므로 승주·화음·회주·평주 등이 모두 당 대의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지명들을 청(淸) 대에 제작된 『대청광여도』에서 찾아보면 화음(華陰)과 회주(懷州) 등의 위치를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상기 『사기』 하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주에 속하는 지명으로서 호구(壺口), 태원(太原), 악양(嶽陽), 담회(覃懷), 형장(衡漳) 등을 [그림 1]의 『대청광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회주(懷州)의 경우, 상기 『사기』 하본기에 부기되어 있는 주해(『집해』 14)에 따르면 공안국(孔安國)이 말하기를 담회(覃懷)는 하(河)에 가까이 있는 지명이라고 하였으며,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회현(懷縣)은 하내(河內)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 『색은』 15)에 따르면 하내(河內)에 회현(懷縣)이 있었다고 한다. 또 『정의』 16)에 따르면 『괄지지(括地志)』 17)에 쓰여 있기를 회주(懷州)는 무척현(武陟縣)에서 서쪽으로 41리(里)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청광여도』상의 담회(潭懷)와 『사기』 하본기의 담회(覃懷)가 서로 한문이 차이가 있으나 같은 지명으로 볼 수

12) 『사기(史記)』 권제2 하본기(夏本紀) 제2 : 禹行自冀州始. 冀州, 既載 壺口, 治梁及岐. 既脩太原, 至于嶽陽. 覃懷致功, 至於衡漳. 其土白壤. 賦上上錯, 田中中, 常·衛既從, 大陸既爲, 鳥夷皮服. 夾右碣石, 入于海.

13) 『정의(正義)』는 당(唐) 대의 장수절(張守節)이 주해하였으며 모두 30권임. : 按, 理水及貢賦從帝都爲始也. 黃河自勝州東, 直南至華陰, 卽東至懷州南, 又東北至平州 碣石山入海也. 東河之西, 西河之東, 南河之北, 皆冀州也.

14) 『집해(集解)』는 남조(南朝) 송(宋·420~479) 대의 배인(裴)이 주해하였으며 모두 80권임. : 孔安國曰, 「覃懷, 近河地名」. 鄭玄曰, 「懷縣屬河內」

15) 『색은(索隱)』은 당(唐) 대의 사마정(司馬貞)이 주해하였으며 모두 30권임. : 河內有懷縣, 今驗地無名「覃」者, 蓋「覃懷」二字或當時共爲一地之名.

16) 『정의』: 括地志云, 「故懷城在懷州 武陟縣西十一里. 衡漳水在瀛州東北百二十五里平舒縣界也.」

17) 당 대의 지리지.

있으며, 회주(懷州)는 하내(河內)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림 1]에서 하내(河內) 지역 동쪽에 무섭(武涉)이 표기되어 있으나 무척현(武陟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대청광여도』 일부/ 호구, 악양, 담회, 화음 등

또한, 『사기』 하본기의 주해(『집해』 18)에 따르면 공안국(孔安國)¹⁹⁾이 말하기를 갈석은 ‘해(海)’의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하였으며,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해(海)’는 ‘하(河)’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상기 『사기』의 기록 중에서 ‘입우해(入于海)’의 ‘해(海)’는 황해가 아니라 황하(동하)임을 알 수 있으며 갈석산은 ‘해(海)’라고 불렀던 황하(동하)에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사기』 하본기 제2의 주해(『정의』)에 따라 기주의 위치를 표기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만, 동하의 경우 현재의 황하 수로가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대청광여도』에 표기되어 있는 황하古道(黃河古道)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8) 집해: 孔安國曰, 「碣石, 海畔之山也.」, 徐廣曰: 「海, 一作『河』」

19) 중국 전한(前漢) 때의 학자(?-?). 자는 자국(子國)이다. 공자의 제11대 손(孫)으로서 공자가 살던 옛집에서 발견된 『상서』·『예기』·『논어』·『효경』 등을 해독하고 그 책들의 주석을 남겼다.



[그림 3] 아시아 지도 일부 / 서하, 남하, 동하, 기주 등

또한, 『사기』 하본기의 주해(『색은』 20)에 따르면, 지리지에는 갈석산이 북평(北平) 려성현(驪城縣) 서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 21)에는 낙랑(樂浪) 수성현(遂城縣)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長城)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쓰여 있으며, 『수경(水經)』 22)에는 갈석산이 요서(遼西) 임유현(臨渝縣) 남쪽 수중(水中)에 있다고 쓰여 있다. 즉, 갈석산은 두 개가 있는데 상기 ‘협우갈석입우해(夾右碣石入于海)’에서는 북평 려성현에 있는 갈석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색은』은 당(唐) 대의 주해이므로 갈석산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북평 려성현은 당 대의 평주(平州)에 속해 있었으며, 『수경(水經)』은 한(漢)

20) 색은: 地理志云「碣石山在北平 驪城縣西南。」 太康地理志云「樂浪 遂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又水經云「在遼西 臨渝縣南水中。」 蓋碣石山有二, 此云「夾右碣石入于海。」, 當是北平之碣石.

21)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의 정확한 명칭은 『진태강삼년지기(晉太康三年地記)』인데 『사기』 등 주석에서는 『진태강지기(晉太康地記)』 또는 『태강지지(太康地志)』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태강(太康)은 서진의 무제 사마염(司馬炎)의 연호로서 사마염은 치세기간 동안 연호를 세 번 바꾸었는데 바뀐 연호 가운데 하나가 태강(재위 280~289년)이다. 태강 3년(28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진태강삼년지기(晉太康三年地記)』는 지금은 없어져 전해지지 않고 있다.

22) 『수경주(水經注)』: 6세기 이전에 지어진 지리서로서 모두 40권으로 되어 있고 북위(北魏)의 역도원(酈道元)이 편찬했다. 원래는 한(漢)의 상훈(桑欽) 또는 진(晉)의 곽박(郭璞)이 지었다고 하는 『수경(水經)』에 주석을 단 것이지만, 주석 부분이 본문의 20배가량 된다. 내용면에서도 『수경(水經)』은 137개 하천의 발원지·경과 지점·합류점·하구(河口)를 약술했을 뿐인데 반해, 『수경주(水經注)』에서는 지류를 합하여 1,252개 하천의 자연·인문 지리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40권 가운데 10세기 무렵 이미 5권이 없어진 것을 역지로 원래 권수에 맞추느라 체제가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18세기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문헌학적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양수경(楊守敬)·능회정(熊會貞)의 『수경주소(水經注疏)』(1955년)이다.

대 또는 진(晉) 대의 지리지이므로 갈석산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요서 임유현**은 한·진 대의 **유주(幽州)**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한서』(전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

『한서』(전한서) 지리지 제8상²³⁾에 따르면, 앞서 논한 『사기』 하본기와 마찬가지로 우(禹) 임금의 치수(治水) 공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기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갈석과 관련하여 『사기』 하본기에는 ‘협우갈석입우해(夾右碣石入于海)’라고 기록되으나 『한서』 지리지에는 ‘협우갈석입우하(夾右碣石入于河)’라는 기록되어 있다.

즉, ‘해(海)’가 ‘하(河)’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한서』 지리지에 대한 사고(師古)²⁴⁾의 주해에 따르면 갈석은 해변(海邊)에 있는 산 이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해’이든 ‘하’이든지 간에 ‘해’ 또는 ‘하’가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갈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기 『한서』 지리지²⁵⁾에 따르면, 계(薊)는 남쪽으로 제(齊)와 조(趙)로 통하며 발해(勃海)와 갈석(碣石) 사이에 있는 큰 고을이다. 이에 대한 사고(師古)의 주해에 따르면 계현(薊縣)은 연(燕)의 수도이다. 따라서 연(燕)의 수도였던 계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제(齊)와 조(趙)의 위치와 더불어 발해와 갈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서』 지리지²⁶⁾에는 갈석산이 유주 우북평군 려성현 서남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후한서』 군국지 제5(요서군)²⁷⁾에 부기되어 있는 주해에 따르면, 『산해경』²⁸⁾에 쓰여 있기를 유주 요서군 임유현에 갈석산이

23) 『한서(漢書)』(전한서) 권제28상 지리지 제8상 : 冀州既載, 壺口治梁及岐. 既脩太原, 至于嶽陽. 覃懷底績, 至于衡章. 厥土惟白壤. 厥賦上上錯, 厥田中中. 恆·衛既從, 大陸既作. 鳥夷皮服. 夾右碣石, 入于河. 師古曰: 「碣石, 海邊山名也. 言禹夾行此山之右而入于河, 逆上也.」……

24) 안사고(顏師古, 581~645년) : 당 태종 시대 학자로서 나라에서 실시하던 여러 가지 문화사업, 예를 들면 『오경정의(五經正義)』·『수서(隋書)』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또 그가 펴낸 『한서(漢書)』의 주석은 후한 이래의 주석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조부 안지추(顏之推), 숙부 안유진(顏遊秦)이 쌓아올린 가문의 학풍을 계승하였다고 한다.

25) 『한서(漢書)』(전한서)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 薊, 南通齊·趙, 勃·碣之間一都會也. 師古曰: 「薊縣, 燕之所都也. 勃, 勃海也. 碣, 碣石也.」

26) 『한서(漢書)』(전한서)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 右北平郡, 秦置. 莽曰北順. 屬幽州. 戶六萬六千六百八十九, 口三十二萬七百八十. 縣十六, 平剛, 無終, 故無終子國. 水西至雍奴入海, 過郡二, 行六百五十里. 師古曰: 「溲音庚. 卽下所云入庚者同一水也.」石成, 廷陵, 莽曰鋪武. 俊靡, 灑水南至無終東入庚. 莽曰俊靡. 師古曰: 「灑音力水反, 又音郎賄反.」蒼, 都尉治. 莽曰袁陸. 師古曰: 「音才私反.」徐無, 莽曰北順亭. 字, 榆水出東. 土垠, 師古曰: 「垠音銀.」白狼, 莽曰伏狄. 師古曰: 「有白狼山, 故以名縣.」夕陽, 有鐵官. 莽曰夕陰. 昌城, 莽曰淑武. 驪成, 大碣石山在縣西南. 莽曰揭石. 師古曰: 「揭音桀.」廣成, 莽曰平虜. 聚陽, 莽曰篤陸. 平明. 莽曰平陽.

27)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遼西郡 秦置. 雒陽東北三千三百里. 五城, 戶萬四千一百五十, 口八萬一千七百一十四. 陽樂 海陽 令支有孤竹城. 伯夷·叔齊本國. 肥如 臨渝 山海經曰: 「碣石之山, (綱)[繩]水出焉, 其上有玉, 其下多青碧.」水經曰在縣南. 郭璞曰: 「或曰在右北平 驪(城)[成]縣海邊山也.」

28) 『산해경(山海經)』은 중국 선진(先秦) 시대에 저술되었다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신화집 및 지리서이다. 우(禹)의 협력자 백익(伯益)의 저서라고도 전하나 이것은 추측이고, 전국 시대부터 한(漢) 대에 걸쳐서 호기심 많은

있는데 강수(綱水) 또는 승수(繩水)가 출원하며 옥(玉)이 나온다고 하였고, 『수경』에도 갈석산이 임유현 남쪽에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진(晉) 대의 곽박(郭璞)²⁹⁾은 갈석산이 우북평 려성현 해변(海邊)에 있다고 하였다. 즉, 『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갈석산은 한(漢) 대의 유주 우북평군 려성현 서남쪽 또는 유주 요서군 임유현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방향으로 볼 때 려성현은 임유현의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2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기』 하본기의 주해(『색은』)에 따르면, 『색은』은 당 대의 주하이므로 갈석이 있었다는 곳이 당 대의 평주(平州) 북평군 려성현임을 알 수 있으며, 『수경』은 한 대 또는 진(晉) 대의 지리지이므로 갈석산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곳이 한·진 대의 유주(幽州) 요서군 임유현임을 알 수 있다.

또 앞서 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수서』 지리지에 따르면 갈석산은 수 대의 북평군 노룡현에 있었으며, 『신당서』 지리지에 따르면 갈석산이 당 대의 평주 북평군 석성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각 현들의 위치가 서로 다른 곳인지, 아니면 같은 지역이지만 시대 별로 지명이 바뀌었거나 합병 또는 분리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대청광여도』, 『우적도』, 『대명여지도』 등

청(淸) 대에 제작된 『대청광여도』 상에 갈석산이 [그림 4]와 같이 현재의 발해만 북쪽 난하(灤河) 인근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4] 『대청광여도』 일부

또 송(宋) 대에 제작했다는 『우적도』³⁰⁾에도 갈석산의 위치가 [그림 5]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즉, 『대청광여도』에 표기되어 있는 위치와 유사하지만, 갈석산·평주·노룡 등의 위치가 난하(灤河)의 좌우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명여지도』에는 현재의 하북성 발해 인근 지역에 갈

한 가지씩 첨가한 것인데, 남산경(南山經)에서 시작하여 해내경(海內經)으로 끝나는 총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晉, 265~420년)의 곽박(郭璞)이 기존의 자료를 모아 편찬하여 주(註)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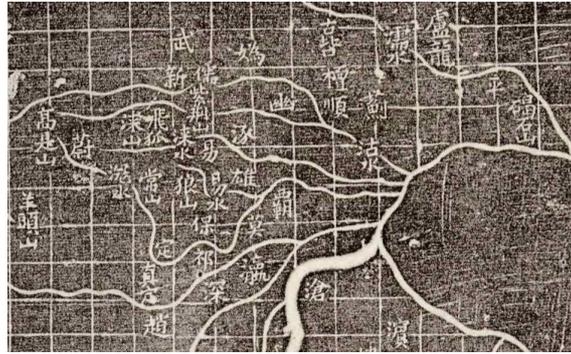
29) 진(晉) 무제(武帝) 함녕(咸寧) 3년(277년)에 태어나 동진(東晉) 명제(明帝) 태녕(太寧) 2년(324년)에 죽었다.

30) 『중국역사도설(中國歷史圖說)』 590 '우적도(禹迹圖)', 민국(民國) 68(1979년), 대만영인본, 대만 신문화출판사(新新文化出版社) 간행 384쪽

석산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산이 없다.

그런데 『대명여지도』³¹⁾ 산서여도(山西輿圖)에는 [그림 6]과 같이 협석산(硤石山)이 황하 북변 지역에 표기되어 있다.

즉, 『대명여지도』 산서여도에 표기되어 있는 협석산(硤石山)이 갈석산



[그림 5] 『우적도』 일부

(硤石山)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협석(硤石)’이란 명칭이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협우갈석(右碣石) 입우해(入于海)’라는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대명여지도』는 명 대(1536~1566년)에 제작되었는데 갈석산, 난하, 만리장성 등이 현재의 발해만 북쪽지역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림 6] 『대명여지도』 산서여도

IV. 갈석산의 위치 비정

1. ‘하(河)’를 ‘해(海)’로 바꾸어 부르는 지점

앞서 III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기』 하본기에는 갈석산과 관련하여 ‘협우갈석입우해(夾右碣石入于海)’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한서』 지리지에는 ‘협우갈석입우하(夾右碣石入于河)’라고 쓰여 있다. 즉, 『사기』 하본기의 ‘해(海)’가 『한서』 지리지에서 ‘하(河)’로 바뀌어져 기록되어 있다.

또 『사기』 하본기에 부기되어 있는 주해(『집해』)에 따르면 공안국(孔安國)이 말하기를 갈석은 해(海)의 경계(畔)에 있는 산이라고 하였으며,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해(海)’는 ‘하(河)’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서』 지리지에 부기되어 있는 사고(師古)의 주해에도 갈석은 해변(海邊)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하였으며, 곽박(郭璞)도 갈석이 우북평 려성현 해

31) 대명여지도(大明輿地圖): 명(明) 대의 이묵(李默)이 1536~1566년경에 제작. 크기 75×84cm.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변(海邊)에 있다고 말했다. 즉, 진(晉) 대(곽박), 남조(南朝) 송(宋) 대(『집해』), 당(唐) 대(안사고)에 갈석이 ‘해변(海邊)’에 있는 산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해(海)’가 현재의 황해(黃海)라면 갈석산은 현재의 하북성 발해만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III장 2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기』의 주해(『정의』)에 따르면, 황하(黃河)가 승주(勝州) 동쪽으로부터 곧바로 남쪽으로 가서 화음(華陰)에 도달하며, 거기서 바로 동쪽으로 회주(懷州) 남쪽을 거쳐 동북으로 가면 평주(平州)에 도달하고 갈석산(碣石山)에서 해(海)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즉, 갈석산은 황하가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황하하구(黃河河口)에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곳이 현재의 발해만 서쪽에 인접한 황하하구라면 발해만 서쪽 인근지역이 당 대의 평주였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기 『사기』의 주해(『정의』)는 당 대에 주해한 것으로서 평주에서 해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곳까지 한 대의 기주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기』 하본기·『한서』 지리지 등에서 기주에 관하여 갈석산까지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海)’가 현재의 황해가 아니고 황하(黃河)라면 ‘하(河)’를 ‘해(海)’로 바꾸어 부르는 지점에 갈석산이 있어야 한다. 또 그 인근지역이 당 대의 평주여야 하며 그 곳까지 한 대의 기주여야 할 것이다. 즉,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하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북방향으로 꺾어지는 지점부터 동하(東河)라고 불렀던 황하 해변(河邊) 어딘가에 평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대의 평주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면, 황하 해변(河邊)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하(東河)가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황하하구(黃河河口) 사이에서 갈석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갈석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하(河)’를 ‘해(海)’로 바꾸어 부르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곳이 ·당과 고구려 간에 국경을 형성하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주가 현재의 하북성 발해만까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III장 3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연(燕)의 수도인 계(薊)는 남쪽으로 제(齊)와 조(趙)로 통할 수 있으며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는 큰 고을이어야 하는데, 계현은 연경(燕京)으로서 다음 절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으로 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³³⁾

따라서 『사기』 하본기·『한서』 지리지(기주) 등에 기록되어 있는 ‘하(河)’ 또는 ‘해(海)’는 계(薊)의 남쪽에 있는 황하(黃河)의 중하류 지역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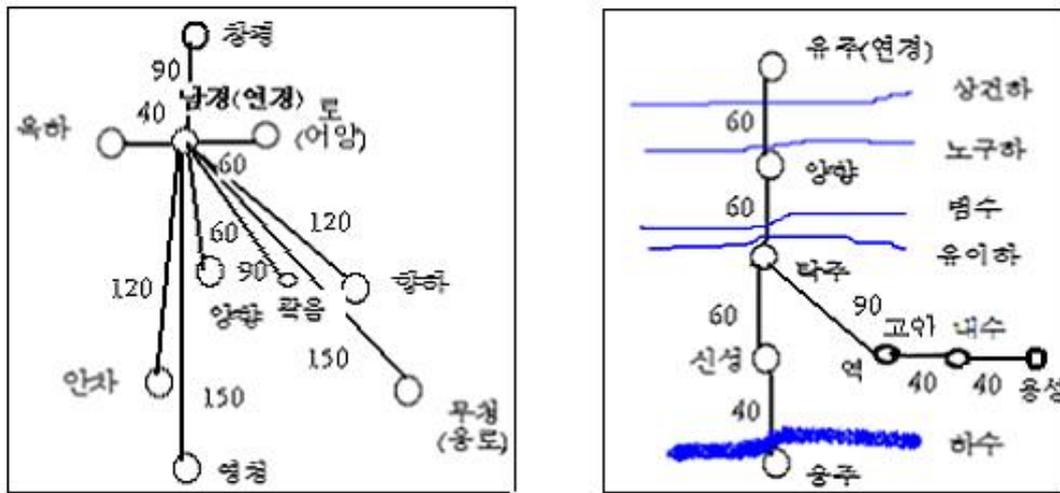
32)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130쪽.

33) 김진경, 「탁록(涿鹿)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仙道文化)』 제13권, 2012.8.

2. 계(薊)의 위치

『요사』 지리지 제4(남경)에 따르면 요(遼) 대의 남경(南京) 석진부(析津府)를 연경(燕京)이라고 불렀는데 남경에 석진현(析津縣), 완평현(宛平縣), 창평현(昌平縣), 양향현(良鄉縣), 로현(潞縣), 안차현(安次縣), 영청현(永清縣), 무청현(武清縣), 향하현(香河縣), 옥하현(玉河縣), 곽음현(溲陰縣) 등 11개 현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석진현³⁴⁾은 진(晉) 대의 계현(薊縣)이었다.

그런데 상기 11개 현 중에서 남경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이 기록되어 있는 9개 현의 거리와 방향을 고려하면 [그림 7]의 왼편 그림과 같다.



[그림 7] 남경(유주) 주변 지역 지명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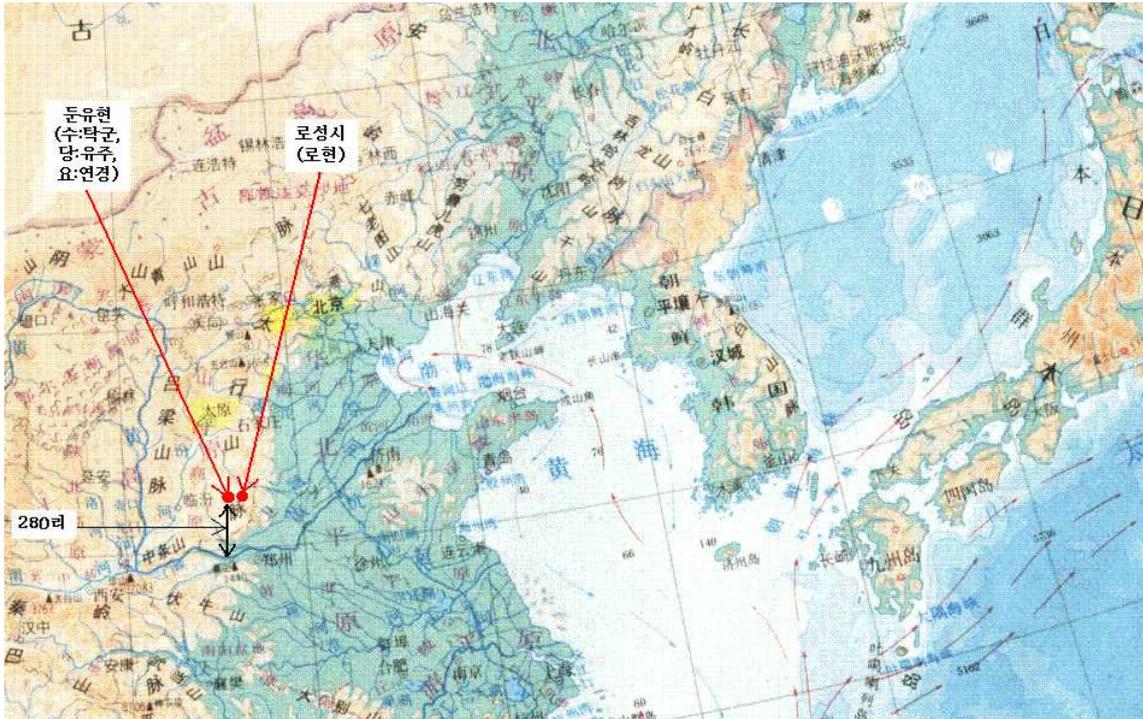
또 상기 『요사』 지리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송(宋) 왕증(王曾)의 상거란사(上契丹事)에 근거하여 웅주(雄州) 백구역(白溝驛)에서 하(河)를 건너 유주(幽州) 연경(燕京)에 도달하는 경로(230리)를 따라 각 지명의 배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7]의 오른편 그림과 같다. 동 그림에서 역, 고안, 내수, 용성 등의 위치는 『요사』 지리지 역주(易州)의 기록을 덧붙여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상기 두 그림 간에 공통된 지명을 찾아보면 양향(良鄉)이 있다. 양향으로부터 유주(幽州)와 남경(南京)의 방향(북쪽)과 거리(60리)가 같으므로 유주와 남경은 같은 지역으로서 상기 두 그림은 같은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두 그림이 서로 인근 지역의 지명들을 상호 보충해 주고 있다.

즉, 상기 [그림 7]의 두 그림에서 요(遼) 대의 남경은 연경(燕京)이라고 불렀는데 당(唐) 대에는 유주(幽州)였으며 계현(薊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수서』 지리지 탁군(涿郡)³⁵⁾의 기록에 따르면, 계(薊)는 연군(燕郡)이

34) 『(遼史)』 권제40 지리지 제4(남경) : 析津縣. 本晉薊縣, 改薊北縣, 開泰元年更今名. 以燕分野旅賓 析木之津, 故名. 戶二萬.

었는데 폐지하고 탁군을 설치하였으므로, 계는 수(隋) 대에 탁군의 치소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구당서』 지리지 제2 유주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당 대의 유주(대도독부)를 수 대의 탁군에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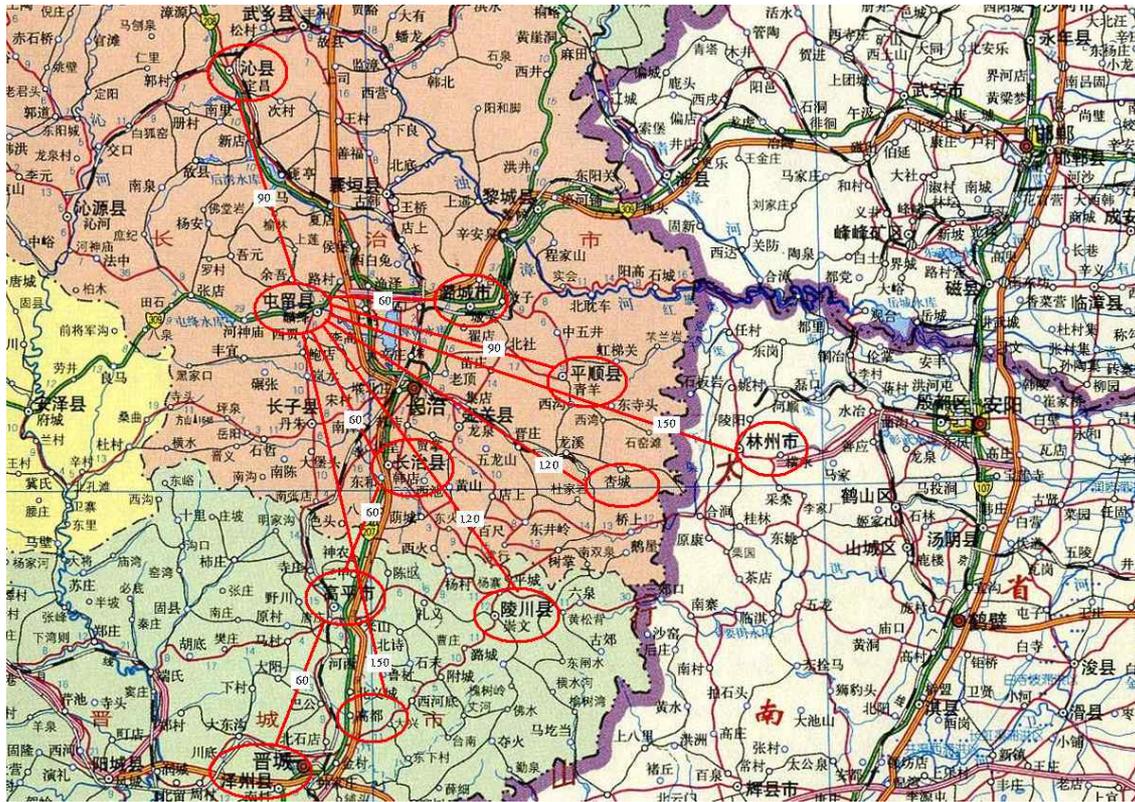
[그림 8] 아시아 지도 일부 / 둔유현과 로성시

그런데 상기 [그림 7]의 오른쪽 그림에서 웅주 백구역에서 하(河)를 건너 연경이라고 불렀던 유주에 도달하는데 북쪽으로 230리였다. 230리는 당척 1리=540m³⁶⁾와 굴곡지수(x)=1³⁷⁾을 적용하면 직선거리로서 230리×540m/리=124km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백만 분의 1지도에서 3.1cm이다. 즉, 상기한 하(河)를 황하(黃河) 또는 황하 인근 지역에 있는 강으로 가정하면, [그림 8]과 같이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屯留縣)과 로성시(潞城市)가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4백만분의 1 지도에서 황하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3.8cm 거리이며 약 280리임).

35) 『(隋書)』 지리지 권제30 : 涿郡, 舊置幽州, 後齊(550~577년)置東北道行臺. 後周平齊, 改置總管府. 大業初(605년)府廢. 統縣九, 戶八萬四千五十九. 薊 舊置燕郡, 開皇初(581년)廢, 大業初(605년)置涿郡. 良鄉 安次 涿 舊置范陽郡, 開皇初(581년)郡廢. 固安 舊曰故安, 開皇六年(586년)改焉. 雍奴 昌平 舊置東燕州及平昌郡. 後周州郡並廢, 後又置平昌郡. 開皇初(581년)郡廢, 又省萬年縣入焉. 有關官. 有長城. 懷戎後齊(550~577년)置北燕州, 領長寧·永 二郡. 後周去「北」字. 開皇初(581년)郡廢, 大業初(605년)州廢. 有喬山, 歷陽山, 大·小翻山. 有灑水·沁水·涿水·阪泉水. 潞 舊置漁陽郡, 開皇初(581년)廢.

36)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46쪽. 시대별로 1리의 길이가 서로 다르나 당척 1리=약 540m이며 한척 1리=약 420m임.

37)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46쪽. 실제이동거리÷직선거리=굴곡지수(屈曲指數) : 『신당서』 지리지에 근거하여 안동도호부(요동성)의 위치를 비정하면서 서안과 낙양으로부터 각각 요양까지 굴곡지수(x)=1.725를 산출하여 적용.



[그림 9] 산서성과 하북성 경계지역 / 계, 양향, 로, 탁, 웅로 등

다시 말해서 [그림 7]의 남경과 로를 현재의 둔유현과 로성시에 각각 대입시켜 보면 요(遼) 대의 남경(南京)과 당(唐) 대의 유주(幽州)를 현재의 둔유현으로 비정할 수 있다.³⁸⁾ 왜냐하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경·로·양향·탁주·안차·신성·창평·웅주·영창·무청·향하·곽음 등의 지명들 간의 거리와 방향이 [그림 9]와 같이 현대 지도상에서 둔유현과 로성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명들과 서로 매우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백만분의 1 지도에서 현재의 로성시로부터 둔유현까지 0.8cm이므로 축척 4백만을 곱하면 직선거리가 32km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 대에도 당 대와 마찬가지로 당척 1리=540m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선거리 32km는 당척으로 $32\text{km} \div 540\text{m/리} = 60\text{리}$ 임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7]의 왼쪽 그림에서 로(潞)로부터 남경(南京)까지 60리라는 거리는 직선거리로 볼 수 있으며 굴곡지수(x)=1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경에서 남쪽으로 양향현까지 60리인데 현재의 둔유현에서 남쪽으로 장치(長治)까지 직선거리로 약 32km(4백만분의 1지도에서 0.8cm)이므로 양향현은 장치 인근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그림 7]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탁주는 고평시 인근 지역으로, 안차현은 현재의릉천현(陵川縣)

38) ,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2012, 167~168쪽.

으로, 신성현은 현재의 대기(大冀) 인근지역으로 각각 비정할 수 있다. 한편, 창평현은 현재의 둔유현 북쪽에 있는 심현(沁縣) 주변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그림 7]의 오른편 그림에서 하(河)수를 현재의 심하(沁河)로 비정할 수 있으며, 웅주(熊州)를 현재의 심양(沁陽)시 또는 제원(濟源)시 인근지역을 비정할 수 있다.



[그림 10] 산서성과 하남성 경계지역 / 비려현, 신창현, 임투현 등

그런데 상기 지명들은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현재의 산서성 동남부와 하남성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지명들은 당(唐) 대에는 유주(대도독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요(遼) 대에는 남경(연경)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국 시대부터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을 중심으로 유주(幽州)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III장 3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서』(전한서) 지리지 제8하에 따르면, 계()는 남쪽으로 제(齊)와 조(趙)와 통하며 발해(勃海)와 갈석(碣石) 사이에서 만나는 큰 고을이다. 또 갈석(碣石)은 하(河) 또는 해변(海邊)에 위치해야 하므로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석산은 현재의 둔유현에서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와 만나는 황하 인근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기 『한서』(전한서) 지리지³⁹⁾에 따르면, 연(燕)의 땅 남부 지역이 탁

39) 『(漢書)』(전한서) 권제28하 지리지 제8하 : 燕地, 尾箕分也. 武王定殷, 封召公於燕, 其後三十六世與六

군(涿郡) 지역인데 탁군에 속하는 현 중에서 안차(安次)는 발해()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안차는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천현(陵川縣)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발해는 해(海)의 어떤 명칭이라기보다는 안차가 속해 있었던 고대 행정구역 또는 지역의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유주(幽州) 요서군 또는 평주(平州) 북평군

1) 한(漢)·진(晉) 대의 유주

『한서』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서군과 『후한서』 군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서군을 비교해 보면, 전한 대에 원래 14개현이 있었는데 후한 대에 양락(陽樂)·해양(海陽)·영지(令支)·비려(肥如)·임유(臨渝) 등 5개현만 남고, 차려(且慮)·신안평(新安平)·유성(柳城)·빈중(賓從)·교려(交黎)·호소(狐蘇)·도하(徒河)·문성(文成)·루(婁) 등 9개현이 빠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한서』(전한서) 지리지의 우북평군(右北平郡)과 『후한서』 군국지의 우북평군을 비교해 보면, 전한 대의 우북평군에 모두 16개현이 있었는데 후한 대에 토은(土垠)·서무(徐無)/북순정(北順亭)·준마(俊靡)/준마(俊麻)·무종(無終) 등 4개현은 남아 있으나, 평강(平剛)·석성(石成)·정릉(廷陵)/포무(鋪武)·찬(贊)/부릉(裒陸)·자(字)·백랑(白狼)/복적(伏狄)·석양(夕陽)/석음(夕陰)·창성(昌城)/숙무(淑武)·려성(驪成)·광성(廣成)/평노(平虜)·견양(聚陽)/마릉(篤陸)·평명(平明)/평양(平陽) 등 12개현이 빠졌음을 알 수 있다(‘/’ 뒤의 지명은 본래 명칭임). 여기서 후한 대에 빠진 현들은 명칭 변경, 또는 다른 현과 합병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빼앗긴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요서군과 우북평군에 속하는 현들 중에서 갈석산이 있었다는 임유현·석성현·려성현 등 3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3개현 모두 『한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3개현은 전한 대에 서로 다른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III장 3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 대에 요서군 임유현과 우북평군 려성현이 서로 동서(東西)로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석성현과 려성현은 모두 한(漢) 대의 우북평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갈석산이 있었다고 하는 요서군과 우북평군이 모두 한(漢) 대에 유주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후한서』 군국지의 유주에 속하는 10개 군(郡)과 『진서』 지리지의 유주에 속하는 7개 군국(郡國)과 비교해 보면, 상곡군·대군·요서군 등 3개 군

· 東有漁陽·右北平·遼西·遼東，西有上谷·代郡·雁門，南得涿郡之易·容城·范陽·北新城·故安·涿縣·良鄉·新昌，及渤海之安次，皆燕分也。樂浪·玄菟，亦宜屬焉。

(郡)은 변동이 없고 어양군·탁군·광양군·우북평군·요동군·현도군·낙랑군 등이 빠지고 범양국(范陽國)·연국(燕國)·북평군(北平郡)·광녕군(廣寧郡) 등이 새로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즉, 진(晉) 대에 유주에서 다스린 7개 군국은 범양국·연국·북평군·상곡군·광녕군·대군·요서군 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서』 지리지의 평주⁴⁰)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진(晉) 함녕(咸寧) 2년(276년) 10월에 요동·창려·현도·대방·낙랑 등 5개 군국을 분리하여 평주를 설치하였다. 즉, 진(晉) 대에 평주에서 다스린 5개 군국은 창려군(昌黎郡)·요동국(遼東國)·낙랑군(樂浪郡)·현도군(玄菟郡)·대방군(帶方郡) 등이다.

따라서 진 대에도 요서군과 북평군은 유주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한 대의 요서군⁴¹)과 진 대의 요서군⁴²)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던 현들을 비교해 보면, 후한 대에는 양락(陽樂)·해양(海陽)·영지(令支)·비려(肥如)·임유(臨渝) 등 5개현이 있었으나, 진 대에는 영지와 임유가 빠지고 양낙·비려·해양 등 3개현만 남아 있다. 그러나 3개현이 모두 요서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후한 대의 요서군과 진 대의 요서군은 거의 같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 빠져 나간 영지(令支)와 임유(臨渝)는 다른 현에 합병되었거나 전쟁에서 빼앗긴 것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후한 대의 우북평군과 진 대의 북평군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던 현들을 비교해 보면, 후한 대에 토은(土垠)·서무(徐無)/북순정(北順亭)·준마(俊靡)/준마(俊靡)·무종(無終) 등 4개현이 있었는데 진 대에도 똑 같다.

따라서 후한 대의 우북평군과 진 대의 북평군은 같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즉, 진 대에 유주에서 평주를 분리했었지만 요서군과 (우)북평군은 후한 대와 진 대에 걸쳐 같은 지역으로서 모두 유주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북위(北魏) 대의 평주

『위서』 지형지 권106상에 따르면 평주(平州)는 비려성(肥如城)에 두었으며 요서군(遼西郡)과 북평군(北平郡)을 다스렸다.

요서군은 본래 진(秦)에서 설치했는데, 북위 대에 비려(肥如)·양낙(陽樂)·해양(海陽) 등 3개현을 다스렸다. 비려현에는 고죽산사(孤竹山祠)·갈석(碣石)·무왕

40) 『(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平州. 案禹貢 冀州之域, 於周爲幽州界, 漢屬右北平郡. 後漢末, 公孫度自號平州牧. 及其子康·康子文懿並擅據遼東, 東夷九種皆服事焉. 魏置東夷校尉, 居襄平, 而分遼東·昌黎·玄菟·帶方·樂浪五郡爲平州, 後還合爲幽州. 及文懿滅後, 有護東夷校尉, 居襄平. 咸寧二年(276년)十月, 分昌黎·遼東·玄菟·帶方·樂浪等郡國五置平州. 統縣二十六, 戶一萬八千一百. 戶一萬八千一百 八千, 各本作「六千」, 今從殿本作「八千」, 與統計戶數相符.

41) 『후한서(後漢書)』 지(志) 제23 군국(郡國) 제5 : 遼西郡 秦置. 雒陽東北三千三百里. 五城, 戶萬四千一百五十, 口八萬一千七百一十四. 陽樂 海陽 令支有孤竹城. 伯夷·叔齊本國. 肥如 臨渝 山海經曰: 「碣石之山, (綱)[繩]水出焉, 其上有玉, 其下多青碧。」水經曰在縣南. 郭璞曰: 「或曰在右北平 驪(城)[成]縣海邊山也。」

42) 『진서(晉書)』 지리지 권제14(지리 상) : 遼西郡 秦置. 統縣三, 戶二千八百. 陽樂 肥如 海陽

사(武王祠)·영지성(令支城)·황산(黃山)·유하(濡河) 등이 있었다. 양낙현은 446년에 영지(令支)·함자(含資)와 합병했는데 무력산(武歷山)·복주산(覆舟山)·임유산(林楡山)·태진산(太眞山) 등이 있었다. 해양현에는 횡산(橫山)·신부산(新婦山)·청수(淸水) 등이 있었다. 즉, 비려·양낙·해양 등 3개현이 모두 한·진 대에 요서군에 소속되었었으며 북위 대에도 요서군(평주)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평군도 본래 진(秦)에서 설치했는데, 북위 대에 조선(朝鮮)·창신(昌新) 등 2개현을 다스렸다. 조선현은 한·진 대에 낙랑(樂良)에 소속되었었는데 빼앗겼다가 432년에 조선민(朝鮮民)들을 비려(肥如)에 옮기고 다시 (조선현을) 설치했으며, 창신현은 전한 대에 탁(涿)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후한·진 대에 요동(遼東)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북평군에 소속되었었으며 노룡산(盧龍山)이 있었다.

그런데 진 대의 요서군과 북위 대의 요서군을 비교해 보면, 진 대의 요서군에 양낙·비려·해양 등 3개현이 있었는데 상기 북위 대의 요서군에서도 양낙·비려·해양 등 3개현을 다스렸다. 따라서 앞서 1)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후한 대의 요서군과 진 대의 요서군이 거의 같은 지역이었으며, 북위 대의 요서군도 같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지와 임유가 진 대에 빼졌다가 영지와 함자가 북위 대에 양락과 합병하였을 뿐이다. 즉, 영지·함자·양락 등 3개현은 모두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상기 『위서』 지형지에 따르면 446년에 양락이 영지와 함자 등과 합병하였는데, 영지는 진 대에 요서군에서 빠져나갔던 현이며, 함자는 『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낙랑군에 속했던 현이다. 즉, 북위 대에 요서군과 낙랑군이 인접해 있었으며 다만 경역이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지(令支)가 양낙에 합병된 것은 영지가 진 대에 다른 현과 합병되었었거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북위가 되찾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함자는 전한·후한 대에 낙랑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진 대에는 대방군(평주)에 소속되어 있다가 북위 대에 양낙과 합병되었었으므로 북위가 양낙 인근에 있는 영지와 함자를 점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서군은 전한·후한 대에 낙랑군과 인접하고 있었으며, 진·북위 대에는 대방군(후한 말에 공손도가 낙랑군을 분리하여 설치)에 인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 대의 북평군과 북위 대의 북평군을 비교해 보면, 진 대의 북평군에 토은(土垠)·서무(徐無)/북순정(北順亭)·준마(俊靡)/준마(俊麻)·무종(無終) 등 4개현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북위 대의 북평군에는 조선(朝鮮)·창신(昌新) 등

2개현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현은 한·진 대에 낙랑(樂良)에 소속되어 있던 현이므로 북위 대의 북평군이 낙랑군과 서로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창신현은 후한·진 대에 요동(遼東)에 소속되어 있던 현이므로 북위 대의 북평군이 요동군과도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낙랑군에 소속되어 있던 조선현과 요서군에 소속되어 있던 비려현이 인접하고 있었거나 조선민을 비려현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 대의 북평군에 속한 토은·서무/북순정·준마/준마·무종 등 4개현과, 북위 대의 북평군에 속한 조선·창신 등 2개현은 소속 현들의 명칭이 전혀 다르므로 원래 북평군에 속한 지역이 서로 다른 것인지 현들의 명칭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기 『위서』 지형지에 따르면 북위 대의 창신현(昌新縣)은 전한 대의 탁(涿)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후한·진 대에 요동(遼東)에 소속되어 있었다. 또 『한서』·『후한서』·『진서』 등의 지리지에 ‘신창(新昌)’이란 지명이 전한 대의 탁(涿)과 후한·진 대의 요동(遼東)에 속해 있었다. 또한, 『요사』 지리지 제4(남경)에 따르면 요 대의 탁주에 신성현(新城縣)이 속해 있었는데 한 대의 신창현이었다.

따라서 요 대의 신성현은 북위 대에 창신현이었으며, 전한·후한·진 대에 신창(新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7]의 오른쪽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요 대의 신성현을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大冀) 주변 인근지역(진성시와 탁주현 등)으로 비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이 한·진 대에는 유주에 속해 있었으나 북위 대에는 평주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3) 수(隋) 대의 북평군과 당(唐) 대의 평주

『수서』 지리지의 북평군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북평군은 평주가 있던 곳인데 노룡(盧龍)에서 북평군을 다스렸으며 신창(新昌)·조선(朝鮮) 등 2개현을 다스렸다. 후제(後齊, 550~577년) 때 조선현을 신창현에 포함시키고, 요서군의 해양현(海陽縣)을 비려현(肥如縣)에 속하게 했으며, 586년에 비려현을 신창현에 포함시켰다. 수(隋)는 598년에 신창현을 노룡(盧龍)으로 고치고 605년에 북평군(北平郡)을 설치하였다. 장성(長城)이 있었으며, 관관(關官)·임유궁(臨渝宮)·복주산(覆舟山)·갈석(碣石)·현수(玄水)·로수(盧水)·온수(溫水)·용선수(龍鮮水)·거양수(巨梁水) 그리고 해(海)가 있었다.

즉, 갈석산은 수 대의 북평군 노룡현에 있었는데 노룡현은 본래 신창현이었으며, 신창현에 조선현과 비려현이 합병되었다. 또 비려현에 해양현이 합병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요서군에 속하던 비려현과 해양현이 합쳐진 후 다시 북평군 신창현에 합병되었으며 명칭이 노룡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앞서 2)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갈석산은 북위 대의 평주 요서군 비려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수 대에는 북평군 노룡현에 위치하였다고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룡·신창·조선·비려·해양 등 각각의 본래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인근 주변지역에서 갈석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기 5개현들의 본래 경역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모두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창현은 앞서 2)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대기(大冀) 주변 인근지역(진성시와 택주현 등)으로 비정할 수 있으므로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석산은 현재의 대기(大冀)와 황하 주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신당서』 지리지 제3에 따르면 평주 수 대의 북평군이였다. 처음에는 임유현(臨渝縣)에서 다스렸는데 618년에 (치소를) 노룡현(盧龍縣)으로 옮겼다. 북평군에 3개현이 있었는데, 노룡현은 본래 비려현(肥如縣)이었으며 619년에 이름을 바꾸었다. 또 무녕현(撫寧縣)을 설치하였는데 625년에 없앴다. 석성현(石城縣)은 본래 임유현이었는데 624년에 없앴다가 641년에 다시 설치했으며 697년에 석성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 임유관(臨渝關)과 대해관(大海關)이 있었으며 갈석산이 있었다. 마성현(馬城縣)은 옛 해양성(海陽城)인데 740년에 설치했으며 수운(水運)을 통하게 했다. 동북쪽에 천금야(千金冶)가 있으며 동쪽에 무향진성(茂鄉鎭城)이 있었다.

즉, 갈석산은 당 대의 평주 석성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래 명칭이 임유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석성현, 해양현, 임유현, 비려현, 신창현, 노룡현, 려성현 등

『요사』 지리지 제4(남경)에 따르면, 평주는 노룡현(盧龍縣), 안희현(安喜縣), 망도현(望都縣) 등 3개현을 다스렸다. 노룡현은 본래 비려국(肥如國)이었는데 춘추시대 때 진(晉)이 비(肥)를 멸망시키자 비자(肥子)가 연(燕)으로 도망가서 봉해진 곳이다. 한·진 대에는 요서군에 속했으며 원위(元魏, 북위) 대에 군(郡)을 두었으며 아울러 평주(平州)를 설치하였다. 북제(北齊) 대에 북평군에 속하였다가 수(隋) 개황(開皇, 581~600년)중에 비려(肥如)를 신창(新昌)에 포함시켰으며 598년에 신창을 노룡(盧龍)으로 고쳤다. 당(唐) 대에 평주로 삼았다.

안희현은 본래 한(漢)의 영지현(令支縣)이었는데, 폐한지 오래되었으며 태조

(太祖)가 정주(定州) 안희현(安喜縣)에서 잡은 부호(俘戶)들을 그 곳에 살게 하였다. 평주의 동북쪽 60리에 있었다. 망도현은 본래 한(漢)의 해양현(海陽縣)이었는데 폐한지 오래 되었으며 태조(太祖)가 정주 망도현에서 잡은 부호(俘戶)들을 살게 하였다. 해양산(海陽山)이 있으며 평주의 남쪽 30리에 있었다.

이어서 『요사』 지리지 제4(남경)에 따르면, 난주(灤州)는 본래 옛 황락성(黃洛城)이었다. 난하(灤河)가 둘러싸고 있으며 노룡산(盧龍山) 남쪽에 있었다. 제(齊) 환공(桓公)이 산융(山戎)을 치고 산신(山神) 유(兪)를 본 곳이다. 진(秦) 대에 우북평군이었으며 한(漢) 대에 석성현(石城縣)을 두었는데 뒤에 해양현(海陽縣)이라 하였다. 한 말기에 공손도가 차지했었는데 진(晉) 이후에 요서군에 속하였으며, 후진(後晉, 또는 石晉)이 땅을 나누어 평주의 경계에 설치하였다.

또 난주(灤州)는 산을 등지고 하(河)가 둘러쳐져 있었다. 임유산(臨榆山)이 있고 아래로는 임유하(臨渝河)가 흘렀다. 3개현이 있었는데 의풍현(義豐縣)은 본래 황락(黃洛)의 옛 성(城)이었으며 황락수(黃洛水)가 노룡산(盧龍山) 북쪽에서 출원해서 남쪽으로 유수(濡水)로 흘러들어갔다. 한 대의 요서군에 속했는데 폐한지 오래되었으므로 당 대에 거란에 속했으며, 요(遼) 세종(世宗)이 현을 설치하였다.

마성현(馬城縣)은 본래 노룡현 땅이었는데 당(唐)이 740년에 노룡현을 분할하여 설치하였으며 수운(水運)을 통하게 하였다. 동북쪽에 천금야(千金冶)가 있고 동쪽에는 무향진(茂鄉鎭)이 있으며 요(遼) 대에 나누어 난주에 예속시켰다. 난주의 서남쪽 40리에 있었다. 석성현(石城縣)은 한 대에 설치하였고, 우북평군에 속하였는데 폐한지 오래 되었다. 당(唐) 정관(貞觀, 627~649년) 중에 임유현(臨渝縣)을 설치하였고, 696년에 석성현으로 고쳤다. 난주의 남쪽 30리에 있었다. 지금 현은 그 남쪽 50리에 있다.

그런데 상기 요 대의 평주와 난주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왜냐하면 평주의 남쪽 30리에 있는 망도현은 본래 한 대의 해양현이었는데, 난주의 남쪽 30리에 있는 석성현도 한 대에 해양현이었기 때문이다. 즉, 상기 『요사』 지리지에 따르면 난주의 남쪽 30리에 있는 석성현은 당 대에 설치한 임유현이었는데, 한 대에 원래 석성현이었으며 나중에 해양현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난주의 석성현과 평주의 망도현이 한(漢) 대에 모두 해양현이었으므로 비록 거리가 다소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상기 난주의 기록은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을 중복해서 기록했음을 알



[그림 11] 평주, 난주 등

수 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난주는 난하(灤河)가 둘러싸고 있으며 노룡산(盧龍山) 남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에서 다시 난주는 산을 등지고 하(河)가 둘러쳐져 있는데 임유산(臨榆山)이 있고 아래로는 임유하(臨渝河)가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기 두 가지 기록이 모두 올바른 기록이라면 노룡산과 임유산은 인접해 있었거나, 같은 산으로서 시대별로 또는 부르는 주체별로 명칭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2)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북위

대에 요서군에는 임유산이 있었고 북평군에는 노룡산이 있었으므로 같은 산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난하와 임유하는 현재의 심하(沁河)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난주의 기록에서 앞부분에서는 난주가 본래 옛 황락성(黃洛城)이었으며 진(秦) 대에 우북평군에 속했었으나, 진(晉) 이후에 요서군에 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 다시 난주에 속하는 의풍현(義豐縣)은 본래 황락(黃洛)의 옛 성(城)이었는데 한(漢) 대의 요서군에 속했었다고 한다. 즉, 황락성이 위치한 지역이 진(秦) 대에 우북평군에 속했었으나 한(漢) 대에 요서군에 속했다가 진(晉) 이후에도 요서군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요사』 지리지 제4(남경)의 기록에 따라 요(遼) 대 망도현의 명칭 변화를 고려해 보면, 원래 한(漢) 대에 석성현/우북평군이었는데 해양현/요서군에 합병되었다가 진·북위 대에 걸쳐 해양현/요서군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서 수 대에 해양현이 비려현/북평군에 합병되었으며(수는 605년에 각 군을 정비하면서 유성현에 요서군을 별도로 설치하였음.) 비려현이 다시 신창현/북평군에 합병된 후, 명칭이 노룡현/북평군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 대에 (옛 해양현/석성현 지역에) 임유현/평주를 설치하였는데 명칭을 석성현/평주로 바꾸었으며 다시 요 대에 망도현/평주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 대의 망도현/평주와 석성현/난주가 같은 지역이므로 [그림 11]과 같이 지명 배치도를 그려 볼 수 있다.

즉, [그림 11]에서 보면 안희현은 본래 한(漢)의 영지현이었는데 북위 대에 양낙이 영지·함자 등과 합병되었으므로, 안희현 인근 지역에 양낙, 함락 등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함자는 대방군(본래 낙랑군)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북위 대에 양낙과 합병되었으므로 양낙 인근 지역부터 동쪽으로 대방(또는 낙랑) 땅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마성현은 옛 해양성()이었으므로 해양현에 속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수운(水運)을 통하게 했으므로 운하(運河)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앞서 3절 3)항에서 논한 바와 같이 [그림 10]에서 보면 수 대의 북평군 신창현을 현재의 대기(大冀) 주변 인근지역(진성시의 택주현 등)으로 비정할 수 있는데 대기의 바로 남쪽 지역에서 현재의 단하(丹河)와 심하(沁河) 사이에 있는 심양(心陽)시 인근의 수로(水路)가 인공적으로 건설한 운하(運河)임을 알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하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현재의 집작시 앞을 지나 신향시 쪽으로 가는 수로가 또 있기 때문이다. 즉, 단하가 원래 동쪽으로 집작시 앞으로 흘렀으나 인공적으로 수로를 건설하여 단하(丹河)가 남쪽으로 심하(沁河)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심양 인근 지역을 마성현으로 본다면, 그 곳에서 동북쪽 40리(40리×540m/리=약 22km) 거리에 있는 집작(集作)시를 비려현으로 비정할 수 있다. 또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작시에서 동북방향으로 60리(60리×540m/리=약 32km) 거리에 있는 상팔리(上八里) 인근 지역을 안희현(영지현, 양낙현, 함자현 등)



[그림 12] 삼황산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집작시에서 남쪽으로 30리(30리×540m/리=약 16km) 거리에 있는 무척현(武陟縣) 인근 지역을 임유현(석성현 또는 망도현)으로 비정할 수 있다. 즉, 갈석산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한 대의 요서군 임유현과 당 대의 평주 석성현은 같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III장 3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 대의 우북평군에 속해 있었던 려성현은 요서군에 속했던 임유현(석성현)의 동쪽 방향에 인접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사』 지리지 제3(중경)에 따르면 중경(中京) 대정부(大定府)가 다스린

10개 주(州) 중에서 유주(榆州)는 본래 한(漢)의 임유현 땅이었는데 나중에 우북평군 려성현에 예속되었다고 한다. 즉, 임유현과 려성현은 인접하고 있었으며 임유현이 려성현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 대에 해양현(석성현, 임유현)이 비려현에 합병되고 비려현이 신창현에 합병된 후 노룡현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므로 **노룡현**도 같은 지역인 셈이다. 즉, 모두 한·진 대에는 **유주**에 속해 있었으나, 북위·수·당 대에는 **평주**에 소속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갈석산이 려성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임유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갈석산의 위치는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하강 남쪽 지역에 있는 (三皇山)으로 비정할 수 있다. 현재 삼황산 동쪽 끝 지점에 [그림 12]와 같이 염제와 황제의 석각이 있다.

그런데 『후한서』 군국지에서 요동군과 요서군 등의 위치를 동북방향으로 현재의 난하(灤河)까지 변이시키면서 발해와 갈석산도 옮겨야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송(宋) 대에 제작되었다는 『우적도(禹迹圖)』를 비롯하여 갈석산이 현재의 하북성 난하 주변에 표기된 지도들은 모두 명(明)이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긴 해인 1402년 직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⁴³⁾ 또 지명뿐만 아니라 난하, 거마하 등 강 이름도 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맺는말

전국시대 연(燕)의 수도는 계현(薊縣)에 있었는데, 수 대의 탁군과 당 대의 유주(대도독부)가 모두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요 대의 남경도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으로 비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갈석산은 계현이었던 현재의 산서성 둔유현 남쪽의 황하 인근 지역에 갈석산이 있어야 한다.

또 『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갈석산은 **유주 우북평군 려성현 남서쪽** 또는 **유주 요서군 임유현 남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서』 지리지에는 **북평군 노룡현**, 『신당서』 지리지에는 **평주 석성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임유현과 석성현은 같은 지역이며, 려성현은 임유현/석성현의 동쪽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신창현에 합병한 후, 노룡현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43) , 『조선 600년간의 비밀, 요동과 부여』, 어드북스, 2013.1.

따라서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하남성 무척현 남쪽의 황하 건너편(남쪽 강변)에 있는 삼황산()을 갈석산으로 비정할 수 있었다. 즉, 삼황산은 임유현/석성현의 남쪽이면서 려성현의 서남쪽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규원사화(揆園史話)』

『전국책(戰國策)』

『회남자(淮南子)』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위서(魏書)』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통전(通典)』

『요사(遼史)』

『대청 광여도(大清廣輿圖)』

『대명 여지도(大明輿地圖)』

김진경, 『고대 요수(遼水)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뇌교육 대학원대학교, 2012.

김진경, 『고구려 평양성에서 바라보는 초주(椒州)와 해주(海州)』, 어드북스, 2012.6.

김진경, 『조선 600년간의 비밀, 요동(遼東)과 부여(夫餘)』, 어드북스, 2012.6.

김진경, 「갈석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제13권, 2012.8.

【Abstract】

A Study to verify the Location of the Mt. Gal-Seok(碣石)

Kim, Jin-Kyoung

The location of Mt. Gal-Seok(碣石) indicates where the border between Go-Gu-Kyeo and Sui/Tang(隋/唐) is during the 7th century. Aiso, indicates it the territory of ancient country before the 7th century. Namely according to *the Sam-Guk-Sa-Gi*, *the Sui-Shu*, *the New History of the T'ang Dynasty* and *the Tzuchih t'ungchien*, we can see that the Sui or the Tang proceeded to the Gal-Seok and the Balhae in order to attack Go-Gu-Kyeo.

However, according to *the Sui-Shu* and *the New History of the T'ang Dynasty*, the Mt. Gal-Seok(碣石) is located on the No-Ryong-Hyun or the Seok-Sung-Hyun in the Buk-Pyung-Gun.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record of *the Hanshu*, is the Mt. Gal-Seok(碣石) on the Ryeo-Sung-Hyun in the Buk-Pyung-Gun, and according to the notes(*the Shanhai Ching*, *the Shui-Jing*, etc.) of the Hou-Han-Shu, is the Mt. Gal-Seok(碣石) on the Im-You-Hyun in the Yo-Seo-Gun.

Therefore, I have verified the location of the You-Ju and each Hyun belonging to the You-Ju, and clarified that the Mt. Gal-Seok(碣石) is the Mt. Sam-Hyang(三皇) which is on the southern riverside of the Yellow River locating north-west of the present Jeong-Ju city in the Ha-Nam Province.

On the other hand, I can presume that *the Shang Shu* was written after the Liu Song Dynasty when *the Hou-Han-Shu* was written, and that the old maps including the U-Jeok-Do which the Mt. Gal-Seok(碣石) is marked near the present Nan-Ha in the Ha-Buk Province were made after the Ming Dynasty, 1402. Because we can presume that the location of ancient places was changed to the north-east after that the Ming Dynasty has removed it's capital from the southern capital to the present Beijing city on 1402.

Key-wards : Mt. Gal-Seok(碣石), *the Sam-Guk-Sa-Gi*, The Great Wall, Mt. Sam-Hyang(三皇)